

삼성전자 임원진 자사주 잇단 매입... 주가 부양 안간힘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달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일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사장)과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 각각 자사주 3000주와 5000주를 주당 6만4600원과 6만4500원에 매입했다. 쓰인 금액은 총 5억1630만 원이다.

또한 같은 날 최주호 베트남 복합단지장 부사장과 김대주 VD사업부 부사장은 각각 자사주 1500주와 5000주를 매입했다. 금액은 각각 9645만 원과 3억2250만 원이다.

이 외에도 12일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자사주 6000주를 매입했다. 박 사장은 6월 초에도 자사주 5500주를 매입했다. 13일 손태용 VD사업부 부사장과 정용준 파운드리 품질 팀장이 각각 1500주와 1000주를 매입했으며 19일 이종우 시스템 LSI IP 개발팀 상무가 자사주 749주를 매입했다.

또한 한종희 디바이스 경영(DX) 부문장이 5일 자사주 1만 주를 사들였고 노태문

6만 전자서 횡보... 증권사들 줄줄이 목표 주가 하향
용석우·이영희 등 주요 보직 10명 이달 26억대 매입
스마트폰 부진에 AI거품론 겹쳐... 상승기대에 찬물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섰다. 20일 용석우(왼쪽)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과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 각각 자사주 3000주·5000주를 매입했다.

모바일경영(MX) 사업부장은 9일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달 매입한 자사주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26억 원이 넘는다.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책임 경영 강화와 주가 부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임

원들의 자사주 매입도 비슷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올해 주당 7만6900원으로 시작한 삼성전자 주가는 4월2일 8만5000원을 기록하고 7월10일에는 8만7800원까지 오르는 등 '9만 전자'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으나 8월 중순 이후 꾸준히 떨어지며 19일 6만22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식은 23일 낮 12시 기준 주당 6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0개 국내 증권사는 이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스마트폰과 PC 제품 수요가 부진하면서 올해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여겨졌던 인공지능(AI) 열풍 역시 AI 거품론이 제기되며 이전만큼의 주가 상승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주가 부진에 분노하며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다. 한 주주는 직접적으로 임원들의 사퇴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당시 주가가 7만 원 초반에 형성됐는데도 주주들의 불만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주가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개인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내용을 입장을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주가 부양에 대한 질문에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UAE에 대형반도체 공장 건립 TSMC·삼성전자 본격 논의 중

사업 규모 1000억 달러 넘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12위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형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UAE 측과 각각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TSMC의 최고 경영진들이 최근 UAE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논의했다.

소식통들은 논의된 공장 규모가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 내 UAE에 새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고위 인사도 최근 UAE 방문을 통해 해당 계획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공장 설립 프로젝트 자금이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UAE 측이 부담하는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으며 이 사업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34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논의의 포괄적인 목표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증가와 제조사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

설명했다. 무바달라 측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국영 투자기업 'MGX'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전략의 한 축으로 세우고 있다며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정례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다만 UAE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점에서 구체화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바달라는 지난해 말 기준 투자자산의 규모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국부펀드로 UAE는 MGX 등을 통해 최근 AI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WSJ는 다만 공장 설립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술적 장벽을 비롯한 다른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대규모 정제수가 필요하고 공장 운영을 담당할 UAE 내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기술적 측면에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신기술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장애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TSMC와 삼성전자는 공장 설립 방안 검토 과정에서 UAE 시설의 반도체 생산 및 물류 과정을 미 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와 논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유경 기자leeyk@skyedaily.com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형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UAE 측과 각각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차세대 디지털 혁신 전략 발표

컴퓨팅 아키텍처 캔 8.0 공개... 융합 연산자 80개·API 100개 제공
매년 1886억 원 투자... 향후 3년 1500개 이상 APP 파트너 개발

화웨이가 산업 환경에 인공지능(AI)을 심층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발표했다.

23일 화웨이에서 데이비드 왕 화웨이 이사회 전무이사 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의장은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화웨이 연례행사 '화웨이 커넥트 2024'에서 산업 디지털화 및 인텔리전스 확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화웨이 커넥트의 주제는 '인텔리전스 확대'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 기술 전문가·파트너·개발자 등이 한데 모여 다양한 산업이 어떻게 디지털화 및 지능화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

께 공유했다. 왕 의장은 "디지털 및 지능형 전환이 모든 산업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화웨이는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해 미래 보장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별 솔루션을 개발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범용 컴퓨팅을 위한 프로세서 '쿤펑'과 AI 컴퓨팅을 위한 프로세서 '어센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웨이는 현재까지 7600개의 파트너사 및 635만 명의 개발자와 협력해 2만 개 이상의 산업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번 행사에서 화웨이는 완전히 새로운 '캔 8.0'을 공개했다.



데이비드 왕 화웨이 이사회 전무이사 겸 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의장.

캔은 어센드 생태계의 기반으로 2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본 연산자와 80개의 융합 연산자와 통신 및 행렬 곱셈을 위한 100개의 API를 지원해 심층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캔 8.0'은 두 사람이 1개월 걸리는 작업의 양을 1.5명이 1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단축시켜준다.

또한 화웨이는 기업들이 AI 혁신을 가속

할 수 있도록 오픈마인드 애플리케이션 지원 키트를 출시했다. 이 키트는 기업들이 자체 AI 커뮤니티를 빠르게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왕 의장은 "화웨이는 쿤펑 및 어센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광동 초이스 CHOIS PREMIUM Kwangdong
제조원: ㈜노바비스 2공장 위생진단면역관·광명제약사

시간을 거스르는 강력한 활력 에너지로
건강의 시간을 되돌리다!
광동 녹황당 황칠

NEW 신제품

광동 녹황당 황칠

광명제약 진속모델

광동 녹황당 황칠은 청정 제주주의 기운을 담은 '황칠'에 광동의 오랜 천연물 연구 끝에 탄생한 '녹용·황기·당귀'를 배합한 제품입니다!

청정 제주 자연이 선물한 황칠을 현무암이 거문 깨끗한 제주 용암해수로 추출하여 최대로 담았습니다. (자사 제품 기준)

천연물의 과학화를 이끌어온 광동의 기술력으로 찾은 '녹용1 : 황기1 : 당귀2' 최적의 배합비로 배합하였습니다.

한국의 기력을 빈틈없이 채워줄 국내산 진통원료 4종(당귀, 천궁, 속지황, 작약)에 특허원료 1종(중숙생강추출물)을 함께 배합하였습니다.

광동 녹황당 황칠을 섭취하시면 기력보충, 활력 증진, 원기충진,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왕실의 건강을 지키던 진귀한 황칠! 황칠농축액이 최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품 출시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중점품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녹황당 황칠 30병 2박스 구매 시

광동 녹황당 황칠 30병 2박스 무료 증정!

무로 상담 1833-4279